

진해 문화 재설정 커뮤니티댄스 기획*

- 진해 “꽃비내리는 마을 공동체” 근대 유적지 project -

김 유 진**

목 차

Abstract	IV. 근대 유적지 재설정 커뮤니티 댄스
I. 서 론	IV. 결 론
II. 지역문화와 도시계획	참고문헌
III. 지역 문화공동체의 역할	

Abstract

The dance project for cultural reconfiguring community of the Jinhae - The case study of historic site at “falling rain of flowers”, community

Kim, Yu-jin · Wonkw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searching of the Jinhae's modern history through its transmitting culture.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area based on the ruins were explored, in order to conjecture the cultural history of the Jinhae. Was made in expectation that can be performed via a dance an opportunity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past in relation to residents Jinhae current. It will be the chance of changing in recognition of relationship with the local community by understanding the history and modern relics of the area through dance.

* 이 논문은 2013년 한국무용교육원 커뮤니티댄스 자격 검증 기획안 사례발표를 기초로 함.
** 원광대학교 무용학과 박사과정, 부산무용교육원 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논문투고일: 2013. 7. 20. 심사일: 2013. 8. 20. 게재확정일: 2013. 9. 5.

key words: cultural, reconfiguring, historic site, community dance, Jinhae

주요어: 문화재설정, 근대유적지, 커뮤니티 댄스, 진해

I . 서 론

빠앗긴 자의 도시의 시기를 지나 지난 반세기 동안에 우리나라는 압축적이고 급진적이며, 또한 단절적인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과 의식은 점점 개인화 되고 단절되어 왔다. 그 동안의 자본주의적 산업사회를 구성하는 기능적 관계들은 더욱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를 만들어 냈고,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개발 또는 도시개발도 주택공급과 낙후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해당지역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철거, 재정 비하거나 구도심을 두고 신도심을 만들어 구도심을 발전의 도태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 결과, 지역 내 구성원의 빈번한 이주 및 유입 현상이 발생하면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에 기초한 공유가치 또는 규범, 그리고 장소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던 지역 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하였다. 도시 발전 그리고 재생의 패러다임은 경제적 효율성을 지향하는 도시 공간을 목표로 공공/ 전문가 주도의 정책 및 사업추진, 물리적 환경 개선을 우선시하여 사람들간의 관계와 신뢰,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위한 공동체 형성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도시재생, 그리고 지역 문화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고자 하는 생각들이 늘고 있고 ‘지역’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과 공동체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주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동체는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타인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가능성을 실현하는 실천의 장이며,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하나됨을 체험하기 위한 맥락일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은 공동체 생활이다. 부족과 마을이 사라지고 도시가 생성되면서 다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수많은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구도심 신도심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발전 속에서 또 다른 커뮤니티를 찾게 된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진해의 꽃비내리는 마을 공동체의 자발적 형성은 도시의 파편화된 삶의 관계를 공동체적 삶의 관계로 재편하고 도시개발로 인해 구도심이 된 원도심 지역의 문화를 재생산해 내는 지역 문화의 재설정에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진해의 전승문화를 통해 진해 근대사를 탐색하는 진해 마을 공동체 ‘꽃비내리는 마을’의 커뮤니티댄스 기획 연구이다.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건축물들을 통해 진해의 역사를 유추하고, 과거의 생활 모습 등 진해의 문화적 역사를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적을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탐색하는 방식의 본 연구는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의 진해와 거주민의 관계를 통해 이전에 살았던 지역민과 진해와의 관계 형성을 유추하여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무용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이해 방식은 개인과 집단의 문제를 객관적 사회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통한 지역문화 재설정, 지역 문화유산의 인식과 기억을 동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보존하고 그 기억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는 한혜리(2005, 2008, 2011, 2012), 황정옥(2004, 2011, 2012)의 연구가 있다.

II . 지역문화와 도시계획

1. 진해의 전승문화

진해는 식민지 시대 타 도시처럼 기존 시가지에 일본인이 거주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해안 비옥한 농토에서 살던 마을주민들을 강제로 추방하고 군사적 필요에 따라 군항과 배후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출발한 도시이다. 대한 제국말기에 일어난 강제와 수탈의 진해 지역 역사는 전승되는 유적을 통해 한국 근대도시사의 모순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침입자에 의하여 규칙적인 형태를 가지게된 진해는 일본인만을 위해 조성된 도시였던 만큼 다른 도시와의 이질성 즉 도시 간 이중성도 가장 심했던 도시라 할 수 있다. <그림1>은 일제 강점기 당시 진해 신도시 계획도이다. 일본은 진해를 육상과 해상의 교통중심지로 동양무쌍의 대 군항이자 굴지의 무역항으로 만들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대마도를 중심으로 남쪽의 좌세보와 북쪽의 진해에 군항을 두어 대한해협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바다를 제패할 수 있다는 전략 때문이었다. 일제는 식민지에서 효율적인 식민지 경영 및 자국민의 이익과 보호를 목적으로 수많은 도시개발사업을 전개하였다(허정도, 2011:11).” 이러한 목적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은 무시되었고 오직 식민 지배의 효율성만이 고려되어졌다.



그림1. 진해시가도

진해군항은 국권 침탈과정에서 강제로 만들어진 도시인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계획도시이다. “동경에서 발행된 [鎮海大市街建設 現在及將來] 라는 문헌에 의하면 진해가 동양제일의 군항으로 세계의 자랑거리이며 시가지 건설사업과 제등만의 무역항으로서의 가치와 어업근거지로서의 행 항만 계획도 설명하고 있다. 진해가 육상과 해상의 교통 중심지로 부산과 목포는 물론 대구와도 연결되어 만주와 시베리아의 화물과 승객이 진해를 거쳐 일본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희망도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대학까지 포함하는 교육시설을 비롯 남선의 수도로서 진해를 동양무쌍의 대 군항이자 굴지의 무역항으로 소개 하고 있다 (박기식, 2009:29-31).” 근대 계획군사도시로 조성된 지금의 진해는 군항 근처였던 중앙동 중원로터리를 중심으로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일본 해군은 일본인들에게 근처 토지를 대부했고, 토지대부를 받은 자들이 건물을 짓기 시작함으로써 당시 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가지 조경은 지금까지 진해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벚나무 위주로 했다. 한국 산림청 임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910년부터 1916년까지 총 10만여 그루의 벚나무를 심었고 그 벚나무들을 위주로 지금 군항제 축제 등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원대했던 처음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진해는 광복을 맞이하게 된다. L. Gandhi(1998)의 주장처럼 식민성과 근대성은 이질적 현상으로만 보기 보단 일관성 쌍생아와 같은 동시적 발현일수도 있다. 그 이유는 근대사 속에서 식민성은 시기와 장소를 막론하고 발전이라는 명분의 근대성으로 포장 되었고 그런 점에서 식민성

은 근대성의 숨겨진 다른 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근대성과 식민성이 혼재되어 있었던 진해는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일제강점기 발전된 해군도시인 진해를 그대로 인계하였다. 일제 강점기의 군사시설과 현재의 군사시설을 비교해 보았을 때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제국주의의 흔적은 계승되고 있다. 1973년과 1983년 진해시는 개발의 요구와 행정적 편의를 위해 웅천면과 웅동면이 진해시에 편입하여 구시가지권과 신시가지권을 형성했고 편입 이후 재개발과 신도심이 형성되고 있었다.

2. 근대유적지로서의 진해

일제강점기 근대도시계획에 의해 형성된 군항도시 진해는 해군부대의 발달로 우리나라 해군의 중요한 거점도시이다. 광복 이후 진해 시가지는 구시가지권에서 신시가지권 방향으로 시가지 확장이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일체화된 계획으로 시가지가 형성된 것에 비해, 광복 이후에는 공업시설의 유치를 기준으로 한 주거지역의 재편성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었고, 과거 신도심이었던 곳이 구도심이 되어 예전에 모습을 간직한 채로 구도심 바로 옆에 신도심이 발달되었다.

진해 구도심(원도심)이 일제 강점기 초기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도시로서 규제가 기존 건축물들을 신축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따라서 시가지 확장은 도시의 빈 공간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진해 구도심은 일본식 시가 경관이 중앙동을 중심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근대 시가지계획으로 형성된 진해 원도심은 한국 최초의 근대도시계획의 근거물이며 도시 그 자체가 지역의 역사적 자원이라 볼 수 있다. 비록 일제식민지에 의한 군항도시로 계획된 배경을 갖고 있으나 지난 100년간 그 원형을 유지하며 지역의 삶을 도모한 근간이다.



그림 3. 중심시가지의 과거와 현재 모습¹⁾

근대역사환경은 대동계기에 따라 ‘자발성’과 ‘타의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외세에 의한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로 귀결되는 타의성 짙은 근대의 경험으로 인해, 해당시기에 형성된 근대역사환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근대역사환경은 우리사회 구성원의 삶의 흔적이 쌓여있으며, 그것의 가치는 최초 원형 뿐만 아니라 변화속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이유섭, 2011:70).

진해 근대 유적의 경우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인 역사적 사실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의 기능상실과 경제성을 앞세운 개발논리 등의 이유로 많은 수가 없어지고, 변화를 겪기도 했다. 사람들이 사는 환경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끊임없이 관계 맺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유기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강병기 (1996:15)는 사람이 빚어낸 건물로 이루어진 환경이 시간의 흐름 속 어느 시점에서 역사적 가치로 대변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을 지니게 된다고 주장한다. 진해의 근대역사 유적들은 그것이 지닌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해온 사람들의 집단기억의 근원지이자 정체성의 토대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바라봐야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적이든 혹은 인공적으로든 역사 환경은 변화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서로 관계 맺으며 가치 있는 이야기 구조를 이룰 때 지탱하고, 전승되는 역사가 될 수 있으며 당대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

1) 1914년 계획도, 1916년 지형도, 2000년대 위성사진(정호균, 2007)

근대 유적지로서 진해는 문화와 전통이 모여 군집을 이루고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담은 역사적 마을공동체 중 하나이다. 직접적 경험이 불가능한 과거를 현재의 농축된 형태로 재현해주고,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근간을 제공하는 인간관계 형성 역사로서의 지역과 연구사 연구는 문화 계승을 통한 마을 이야기의 발굴일 것이다.

III. 지역 문화공동체의 역할

지역문화가 발달하고 보존되기 위해선 내재적으로 지력을 만들고 가꾸는 주체로서 지역주민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문화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를 통해 실현된다. 지역문화 활동의 주체로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지역문화 활성화라고 개념적으로 접근한다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마을공동체가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는 지역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러한 과정은 지역문화, 문화에 술적 지식과 능력을 칭하는 문화자본이 행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연결망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됨으로써 개인들과 집단 사이간의 결속과 연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Bourdieu, 1984: Putnam, 1996)

1. 마을공동체의 지역적 유대성

마을 공동체는 개인적 만남에서 출발하여 점차 지역을 인식하게 되어 지역사회의 소통을 가능케하고 문화적 토대를 형성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와 주체의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속적 참여를 유지하거나 지역기반의 활동 등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주민들의 의식이 중요할 것이다. 진해 지역문화는 식민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가져다준 비 인간적인 산물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역공동체는 도시 개발로 인하여 손상된 지역의 인간관계를 되살리고 지역 중심의 가치와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스스로 가꾸어가고자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들의 삶과 생활방식을 이해

하고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키울 필요가 있다. 마을 공동체가 지역적 유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지역안에 특별한 그 무엇인가는 심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을 담는 이야기가 마을 공동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주체이자 객체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지만, 지역의 이야기는 자신이 지역문화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기 위해, 지역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지역문화를 이야기 할 때 자신은 지역문화와는 관계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역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도 논의하지도 못하게 된다 (김승환, 2003:47-50).

2. 근대 유적지로 본 진해문화

산업사회에서는 생산물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이 경쟁력이었으나 이제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경쟁력이며 이러한 경쟁력의 보고는 전체성과 고유문화이다. (한혜리, 2012:24)

지역문화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자발적 형성은 도시의 파편화된 삶의 관계를 공동체적 삶의 관계로 재편해 낼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결국 주민 스스로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지역만들기,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가능케 했다.

지역문화 활성화의 궁극적 실천은 실질적 주체인 지역주민들 개인 자신과 자발적으로 조직한 지역공동체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문화는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삶의 기준과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그것의 가치는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실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이 스스로의 지역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통치해가는 지방자치의 완성 그 자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적 관심과 가치실현에서 시작되어 공공영역에서 다양하고 대립적이고 이질적인 자원들을 지역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재현해내는 실천적 과정으로서 진해의 근대 문화와 역사를 이해 할 수 있다. 다음의 표1은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진해의 유적 현황을 조사한 내용이다.

표 1. 진해 근대 유적²⁾

구분	명칭	착공	비고
1	진해 우체국	1912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291호
2	진해역	1926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192호
3	해군통제부 병원장 사택	1938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93호
4	해수양회관	1926	현재 음식점 운영
5	진해역 관사촌	1926	-
6	흑백다방	1940	-
7	일제방공호 1,2	일제강점기	제황산 공원 내 위치
8	진해탑	1967	1-2층 박물관 입지
9	김구 친필 시비	1946	남원 로터리에 위치
10	이순신 장군 동상	1952	한국 최초의 충무공 동상
11	영해루	1949	현재 음식점 운영
12	10월 유신탑	1973	-
13	적산가옥	1930	편백로 마크사거리 입지
14	진해 요항부/ 해군기지 사령부 본관	1912	

구도심 내에 위치하는 유적자원들 중 진해우체국, 진해역, 해군 통제부 병원장사택이 국가지정문화 재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 이외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지어진 목적과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역사문화유산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었다. 조홍석(2002)의 연구에 따르면 약 107개의 근대 유적 건축물들이 존재했다고 한다. 그 중 일제시대에 건축된 것이 79개로 가장 많았고, 해방 이후 건축된 것이 7개정도 였다고 한다. 대부분 근대 역사자원은 구도심 지역 중심인 중원과 가까이 입지하고 있었다. 진해의 유적들은 지난 100년간 그 원형을 유지하며 지역과 지역민의 관계를 도모한 근간이며, 도시계획으로 인해 진해의 고유한 역사자원으로의 가치를 지닌다. 진해에 남아있는 이 같은 근대 문화유산은 경험하거나 참여한 적 없는 역사적 사건을 지금의 거주민과 관계 맺게하는 매개체이자 문화 재설정의 기준을 제공하는 원형인 것이다.

문화유산들이 밀집되어 있는 중원광장은 디자인이 8개의 도로, 즉 방사동심원형광장이 일본제국주의 군부의 상징인 육일 승천기를 본 뿔다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중원광장 디자인이 일본 군부 상징 육일 승천기를 본 뿔다는 해석에는 재론의 여지도 많다.

2) 최창규(2013), 조홍석(2002)의 연구서를 토대로 재구성

방사동심원형광장은 유럽의 도시가 근세에 들어와 많이 채택한 형식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일본의 형상의 중심 태양의 한복판 지점에 진해 사람들에게 1200년을 살면서 진해의 거대한 역사를 함께한 나무 이상의 의미를 가진 팽나무가 있었다. 강점기 내내 중원광장 한복판에 있었던 팽나무는 신도시 계획이 시작된 기점이기도 했다. 위치가 신도시 상징 공간이었던 중원광장 한복판이라는 점에서 비록 마을은 사라졌지만 그 역사와 전통은 존중한다고 표현해 자신들의 강제 토지수탈을 ‘부득이한 조치’로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50년대 중반 고사하였지만 일본제국을 과시하는 시설인 러일전쟁기념탑과 진해신사를 비롯해 진해역, 진해우체국, 진해 면 사무소 모두 나무 주변에 들어섰다. 또한 국가 문화재로 등록된 진해 우체국, 진해역, 해군통제부 병원장 사택 세 건축물 모두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지어진 건물들이라 현재에 민족주의론³⁾ 관점에서 진해의 대표적 근대유산을 보호해야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축물과 유적들이 일제시대때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야 한다는 의견들, 이미 지나온 역사이니 그래도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건축물 이외에도 문화 유적으로 진해에는 군항제라는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큰 행사가 있지만 이 역시 일제 강점기때 부터 내려오던 벚꽃축제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비록 그 유적들의 과거의 형태와 의미가 현재의 우리 가치관에서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진해의 현재는 과거로부터 비롯되었고 문화의 축적을 통해 역사가 형성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남아있는 근대 문화 유적들을 통해 진해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러한 문화 재고는 지역의 미래 방향성에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앞으로 뻗어 나갈 것으로서 가치를 획득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방향성 또한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현존해 있는 근대 건축물을 통해 과거를 바라보고, 개인의 기억 그리고 공동체 기억의 조합, 즉 기억의 재배치를 통해 진해를 세상과 마주하게 함으로서 지역문화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 공동체를 통한 문화 재설정 은 유적에 대한 탐구와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3) 민족주의론 관점에서는 일제시기를 신민지배 아래서 일방적으로 철저하게 착취당한 수탈의 시대이고 이를 벗어나고자 한 독립운동의 시대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근대화 문제와 관련하여도 우리나라는 이미 조선시대때 부터 자생적인 근대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며,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개혁과 근대화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한다

IV. 근대 유적지 재설정 커뮤니티 댄스

1. 기획의 목적

지역은 그 지역이 형성되어온 역사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진 공동의 경험이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 공동의 경험은 지역주민 스스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내부적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 이미지 등 외부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경험을 포함한다. 다양한 감정과 사상 속에 내면화된 이러한 경험은 지역문화의 자산이자 원천이 된다. 이것이 바로 지역의 문화적 사회통합 기능이다. 즉 다양한 인식과 감정, 경험들 속에서의 갈등과 이해를 조정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바로 지역문화이기 때문이다.

진해는 자연발생적 도시라기보다 계획적으로 구분된 인위적 형성과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 그 정체성이 모호하고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 영역을 가지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을 공동체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비슷한 점을 알게 되고 지역주민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 주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지역문화는 결코 일부 특권 계층만의 것도 아니고 대도시에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문화는 진해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의 성과를 지역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화를 향수하는 자세는 수동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그것에 참여하여 더불어 만들어 내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지역의 마을 공동체로서 자기 존재의 실현을 추구하고,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 인간으로서 자기 주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구시가지권의 가장 큰 마을인 중앙동을 중심으로 구시가지권은 형성되어 있었지만 신시가지권 발달로 인해 구시가지권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중앙동 일대의 ‘난쟁이 건물’⁴⁾들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다. 도시 중심기능이 석동 신도시로 옮겨가면서 구시가지에는 과거의 영광만 남았다. 그럼으로 인해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도시가 생겼다. 83년 이후 발달된 진해에 신시가지권으로 주거민들이 옮겨가면서 구시가지에는 원주민들과 해군 군무원들이 섞여 살아가는 이색 도시의 형태의 구시가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터전을 지키며 노후 된 건물처럼 나이를 먹어가는 원주민

4) 중앙동 일대 구도심에는 군사 도시 특성상 고도제한을 하고 있어서 5층 이하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들에 비해 이웃집 군인들은 전근을 오가며 얼굴이 계속 바뀌었고, 이러한 이질적 여건은 주민들을 단절 시키는 크고 높은 벽으로 자리 잡았다. 점차 쇠락해가는 구도심 주민들은 서로 기대며 의지하고 싶었지만 마을 구성원 간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하고 싶어 하고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 해답 중 하나가 꽃비내리는 마을 공동체의 탄생이었다. ‘꽃비내리는 마을’ 공동체 모임이 군무원 출신인 남편을 따라 진해에 정착한 이종화씨가 관장인 ‘아이세상 장난감 도서관’을 출입하는 주부들의 활동이 단초가 되었다. 마을공동체의 산실 장난감 도서관은 2011년 5월 문을 열었다. 구시가지가 슬럼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2010년 10월 당시 시립도서관이 이전하자 지역주민들이 어린이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건의, 현재의 장난감도서관이 탄생했다. 장난감도서관을 중심으로 꽃비내리는 마을 커뮤니티가 형성 활동되고 있다.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의 작은 노력들이 마을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진해 군사 도시의 해군과 지금의 꽃비내리는 마을 주민과 관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문제의 탄생은 일제 강점기 때 형성된 도시조직들이 남아있는 구 시가지권의 수십년전 일이고 일본제국주의 식민취하에서부터 문제가 파생되어 지금의 구시가지권의 문제, 그리고 원주민들과 해군들과의 문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 나와 그리고 내 지역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역사는 대단한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시의 수 없이 많은 구성원들의 모습과 시간을 보여주는 커다란 앨범과도 같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이 만든 식민지 해군 도시 진해의 탄생 전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도시 생성과정을 알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아테네현장이 규정하듯 하나의 소조국인 도시는 정신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진해의 뿌리를 이해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미래에 이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역사를 통해 지역을 탐구하는 일은 그 지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관심, 애정, 자긍심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지역의 건물, 역사적 유물들 그리고 길들은 우리의 공동체가 생산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을 유적 즉 환경에 대한 탐구는 나에게 대한 그리고 나와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구시가지 내에 일어나는 개인들의 문제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관망할 수 있고 그 갈등도 점차 열어질 것이다. 혹여나 새로운 문제와 쟁점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주체적 삶을 살게 되는 마을 주민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길 것이다.

2. 기획 내용

진해 역사를 통해 지금 현재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민에 다가가려 했다. 쓰여진 역사에 서 있는 건물들은 각각의 의미와 사연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그 역사에 대해 아는건 아니다. 주민들 각자의 사연과 의미를 새롭게 담고 지도를 만들고, 함께 만든 지도 위에서 길을 걷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생각했다. 구도심에서 살아가는 진해의 사람들이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함께 지도를 만들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 경험을 통해 공유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함께 하며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통해 진해 시민의 삶의 가치를 풍부하게 하는 한편 과거와 미래를 연결함으로써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시대적 가치의 공유를 통하여 세대간의 소통과 통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1) 무용의 역할 및 형태

참여 형식의 무용: 춤으로 그리는 진해, 꽃비 내리는 근대 유적지 Project

- 무용을 통한 역사 읽기: 역사를 통해 진해의 의미 찾기,

역사 읽기는 역사적 상황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다양한 텍스트가 대상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한 텍스트로서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역사적 진리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는 진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갖는다는 것으로서 중요한 역사 인식의 한 과정이다. 이는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이야기, 도구, 건축물, 문화제, 축제 등으로부터 이해가 가능하다. 많은 역사적 공감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적 행위자와 집단들의 감정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함께하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 의미 있는 움직임 만들기 : 진해의 역사지도로 바탕으로 움직임 만들기

2) 기획 기간

2013. 10 ~ 2014. 5 (준비에서 실행까지)

표 2. 연구진행계획

내용	2013 10	11	12	2014 1	2	3	4	5
사회적 논쟁 스터디								
진해 답사(중앙동 중심)								
기관 접촉 및 인터뷰								
진해 역사 스터디								
참가자 확정(기관 논의)								
프로그램 재 논의								
프로그램 실행								
실행자료 정리								

3) 지역 공동체

진해구 중앙동 일대 꽃비내리는 마을 공동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이세상 장난감 도서관과 진해 예술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4) 규모

- 구성원 : “꽃비 내리는 마을 공동체” 약 20여명
- 모집방안 : 1. 꽃비내리는 마을 공동체가 시작된 아이세상 장난감 도서관 주부들 중 주부 기자단에 광고를 부탁한다.
2. 장난감 도서관에 자주 들르는 구시가지 노인들과, 주부들 가족들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 프로그램 : 주1회 연속 총5회 진행

진해에 있는 근대 역사 자원들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마을 지도를 만들어 그 길을 기억하며 춤을 추는 것이다. 총 5번을 만나면서 마지막 5회기는 진해의 벚꽃이 개화할 때즈음 길놀이 형식으로 발표한다.

5) 조직구조

- 시작점: KS무용교육원·지역예술단체
- 지역사회 구성원: 꽃비 내리는 마을 공동체
- 공공기관 후원: 창원시, 군항제 축제 위원회, 진해세계군악의 장 페스티벌 추진 위원회 (군항제 주관과 주최측/예정)

6) 결과

야외 프리젠테이션(자신들이 만든 지도를 바탕으로 마을 지도 완성하기)

마지막을 야외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할 예정인 이유는 벚꽃핀 길 위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길을 돌아보며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3. Program

1) 구조

본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에 전부 목적을 두지 않았다. 충분한 지역의 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가는 사람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마지막 공연을 위한 4회기가 아니라 4회기를 통한 마지막 발표까지 5회기를 거쳐 자신만의 마을 구조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서로의 개성과 이질성을 존중하면서 배려가 공존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표3. “꽃비 내리는 마을 project” 내용

회기	주제	내용
1	역사 찾아보기 1	과거 물건들을 통해 진해 다시 보기
2	역사 찾아보기 2	숨어있는 진해의 역사 찾기
3	지도 만들기 1	근대 역사 건물들을 통해 자신만의 지도 완성
4	지도 만들기 2	다른 사람과 함께 꽃길 지도 만들기
5	진해 “꽃”길 걷기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추어 꽃길 지도 시연.

프로그램은 읽기 — 재현 — 소통의 과정을 거치기 된다.

	읽기	재현	소통
	보기, 지각, 해석	재현, 모방, 표현	소통, 공연
1	보이는 것과 연상되는 것	재현, 모방	움직임 표현, 리터러시
2	다양하게 바라보기	감정이입, 표현	이야기 나누기
3	기억의 재구성	이미지 해석	움직임 길 정리
4	떠올리기	이미지 재해석	다함께 움직임 길 만들기
5		소통하기	



Literacy

그림 4. 프로그램의 구조

2) 내용

1	주제	역사 찾아보기1
	장소	진해예술촌
	참여자	진해 꽃비 내리는 마을 공동체 20명
	시간	70분

- ① 진해 예술촌에 있는 역사적 물건들을 관람한다. - 층별로 각기 다른 시대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다.
- ② 유물의 용도와 시기를 연관하여 상상하고 이야기 만들어 본다.
- ③ 선택한 유물을 움직임이나 몸으로 표현해 본다.
 - 형태 재현 또는 그 당시를 상상해서 의미를 붙여보고 움직여 본다.
- ④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을 기록해 두고 그 시대의 진해를 조사해 본다.
 - 거기에 있는 pc를 사용해도 좋고, 책을 이용해도 좋다.
- ⑤ 모두가 찾아본 역사를 표 하나에 정리한다.

2	주제	역사 찾아보기2
	장소	진해예술촌
	참여자	진해 꽃비 내리는 마을 공동체 20명
	시간	60분

- ① 60년 이전까지 1200여년 살아있었던 팽나무에 대해 자신의 관찰을 얘기한다.
- ② 시대별로 나무의 모양을 몸으로 만들어본다.
- ③ 중원광장의 길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찾아보고 그 모양과 상황을 상상해 본다.
- ④ 지금의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전 중원광장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조사, 비교해 본다.
- ⑤ 중앙광장의 역사를 유적지와 유적물과의 관계를 상상하면서 그것을 몸으로 표현한다.

3	주제	지도 만들기 1
	장소	꽃비 내리는 마을 장난감 도서관
	참여자	진해 꽃비 내리는 마을 공동체 20명
	시간	70분

- ① 근대 건물들이 나와 있는 지도를 나누어 준다.
 - 지도에는 건물 이미지와 이름을 적어 놓는다.
- ② 지도에 나타나 있는 건물들을 관찰 한 후 자신의 기억, 느낌, 경험, 추억, 생각 등을 기록해 본다.
- ③ 표시한 건물을 임의대로 엮어 길을 표시해 본다.
 -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순서나 조금 더 알고 싶은 순서, 혹은 나와있는 번호대로 엮어도 된다.
- ④ 다시 만든 길의 역사를 정리해 본다.
 - 마을 지도를 그리는 부분에서 표-1에서 나온 유적지가 표시된 지도를 사용한다.

4	주제	지도 만들기
	장소	꽃비 내리는 마을 장난감 도서관
	참여자	진해 꽃비 내리는 마을 공동체 20명
	시간	90분

- ① 인쇄된 큰 지도에 나타난 건물 위에 1(내가 사는 우리 마을), 2(움직이는 지도), 3(팽나무 이야기)회기 때 기록했던 사건들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본다.
- ② 1 - 17까지 근대 건물의 경로를 의논해 그려 본다.
 - 번호순은 세워진 연도별로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 ③ 혼자 움직일 때, 다함께 움직일 때를 정해본다.
 - 각자가 기록해 놓은 메모를 보고 서로 배경이 되어줄 수 있다.
- ④ 초대장 만들기

5	주제	진해 “꽃” 길 걷기
	장소	진해 중앙동 일대
	참여자	진해 꽃비 내리는 마을 공동체 20명
	시간	90분

- ① 함께 만든 마을지도를 기억하며 걷고 유적지나 유적물이 되어 본다.
 - 마지막 장소가 끝나고 나면 중원광장에서 모두 함께 팽나무가 되어 보기도 한다.
- ② 유적지를 중심으로 자신의 느낌의 차이를 탐색하고 서로 관찰해 본다.

3. 기대효과

진해의 뿌리를 이해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미래에 이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을 유적 즉 환경에 대한 탐구는 나에 대한 그리고 나와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구시가지 내에 일어나는 개인들의 문제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관망할 수 있고 그 갈등도 점차 열어질 것이다. 혹여나 새로운 문제와 쟁점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주체적 삶을 살게 되는 마을 주민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길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진해의 전승 문화를 통해 진해 근대사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건축물들을 통해 진해 역사를 유추하고, 진해의 문화적 역사를 찾아가 하였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적을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탐색하는 방식의 본 연구는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의 진해와 거주민의 관계를 통해 이전에 살았던 지역민과 진해와의 관계 형성을 유추하여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무용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진행되었다.

진해가 군사적 필요에 따라 군항과 배후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출발한 도시였으며 개발 과정에서 역사적 문화적 특성은 무시되고 식민 지배의 효율성만이 고려되어 졌다. 일제 식민지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이지만 100년간 그 원형을 유지하며 지역의 삶을 도모한 근대유적지였다. 근대 유적지로서 진해를 문화와 전통이 융합 되어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담은 역사적 마을 공동체로 보았고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마을 공동체가 필요했다. 마을 공동체는 지역 일상생활을 담은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했고 이러한 이야기는 자신이 문화 주체라고 인식하는 주민들에 의해 형성됨을 알고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해의 근대 건축물을 통해 과거를 바라보고, 개인의 기억 그리고 공동체 기억의 포함, 기억의 재배치를 통해 진해를 세상과 마주하게 하였고 지역문화의 의미를 발견해 지역 공동체를 통한 문화 재설정은 유적에 대한 탐구와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토대로 개발 정책에 의해 신시가지권으로 주거민들이 옮겨가면서 원도심에 남은 원주민들과 해군 군무원들이 함께 공존하는 진해 꽃비내리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댄스를 제안하였다. 무용을 통해 역사를 알고 근대유적과 함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그것이 움직임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나와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진해 구시가지 내에 일어나는 개인들의 문제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관망할 수 있고 그 갈등도 열어질 것이다. 혹여나 새로운 문제와 쟁점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주체적 삶을 갖게 되는 마을 주민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생각해 볼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화숙, 전해리, 한혜리, 오레지나(2012), **community dacne**, 한학문화.
- 박기식(2009), “진해시의 시대별 도시경관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유섭(2011), “근대역사환경 보전에서 진정성 확보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정호균(2007), “진해시 발달과정 평가 및 정책방향 제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최창규 외2명(2013), “근대역사문화유산의 보행네트워크를 통한 원도심 재생방안 - 진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2013 춘계학술대회발표.
- 한혜리(2005), “지역사회와 대학의 무용교육 -community dance의 한국적 수용-”, **지역사회, 대학, 무용**, 부산대학무용진흥회 학술심포지움. 경성대학교 대형세미나실, 20-27.
- _____(2008), “무용의 지역사회교육적 접근에 관한 연구 -community dance의 개념과 방법-”,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9집 1호**, 1-22.
- _____(2011), “무용의 사회적 개념 연구-공동체 무용과 교육의 관계-”,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2집 1호**, 17-31.
- _____(2012a), “참여 무용의 제도화를 위한 교육전략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집 1호**, 41-57.
- _____(2012b), “커뮤니티댄스의 교육적 기대와 사회적 효과”, **커뮤니티댄스와 무용교육**, 한국무용교육학회, 제19회 학술심포지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19-30.
- 황정옥(2004), “무용복지제도화를 위한 지역사회무용(communitiy dance) 적용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_____(2011),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 Community Dance의 의미”,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 예술 제4권**, 33-57.
- _____(2012), “커뮤니티댄스의 문화예술교육적 실천 전략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3집 2호**, 52-69.
- 허정도(2011), “일제에 의한 진해신도시계획의 식민성 고찰”,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Gandhi, L.(1998), *Postcolonial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이영옥(역, 2000),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 Putnam, R.(1995),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정승현(역, 2009), **나 홀로 볼링-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 페이퍼로드.